

“점점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두렵습니다.”

- 실명 위기에 처한 서금자(가명) 어르신 이야기 -

어르신이 살고 계신 여관방의 한 쪽 벽면은 곰팡이로 가득하고 여기저기 금이 가 위험스럽게 보입니다.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이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.

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가 다단계 사기회사였고 돈을 벌기는커녕 거액의 빚만 지게 되어, 빚을 갚기 위해 그동안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. 빚 독촉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. 신앙심으로 우울증을 극복해 왔지만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.

요즘에는 아픈 곳이 점점 늘어갑니다. 치아가 마모되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어르신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가고, 이도 모자라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.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야 시력 감소와 실명을 막을 수 있지만 한번에 20만원이나 하는 치료비가 늘 걱정입니다.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앞을 못 보게 될까 공포에 시달립니다.

따뜻한 사랑과 나눔으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세요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서금자님의 치료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
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